

현대중국어 형용사 술어문의 '很' 기능 연구

— 대조언어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최 신 혜*

<목 차>

1. 서론
2. 선행연구 및 문제점
 - 2.1. 대비 관련설
 - 2.2. 묘사성 술어 관련설
 - 2.3. 술어 표지 관련설
 - 2.4. 시제 관련설
 - 2.5. 초점 관련설
3.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형용사 술어문
 - 3.1. 한국어 형용사 술어문의 특징
 - 3.2. 중국어 형용사 술어문의 한국어 대응 상황
 - 3.3. 비(非)대비 표지 '很'
4. 속성 개념의 실현 문제
5. 결론

1. 서론

범언어적으로 형용사는 속성 의미를 나타내며, 정도성 의미자질을 지니고, 이러한 정도성은 통사적으로 정도부사와의 공기나 비교구문 형성과 같은 특징으로 나타난다. 중국어의 형용사는 문장에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으며, 비교구문에 출현 가능하여, 형용사의 보편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밭대학교 중국어과 강사

주목할 만한 것은 영어나 한국어 등 다른 언어의 형용사와 달리 중국어의 형용사는 정도부사와의 공기에 의무성을 띠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중국어에서 속성 의미를 나타내는 진술문에 사용된 형용사는 특정 문맥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정도부사와 공기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해당 형용사가 나타내는 속성의 정도 강화 의미가 없음에도 이러한 제약 때문에 형용사 앞에 정도부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 (1) a. 그는 똑똑하다. (→ 他很聰明。 *他聰明。)
 b. He is smart. (→ 他很聰明。 *他聰明。)

(1a-b)에서 한국어 형용사 ‘똑똑하다’와 영어 형용사 ‘smart’는 모두 정도부사와의 공기 없이 단독으로 출현하여 진술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문장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보면, 형용사 ‘聰明’ 앞에 모두 정도부사 ‘很’이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의 한국어와 영어 표현에서는 정도 강화 의미가 없고,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정도부사도 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중국어 문장에는 정도부사가 출현하였고, 이러한 표현이 (1a-b)에 해당하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대응된 중국어 문장에서 정도부사 ‘很’을 제거하면 특정 문맥의 지지 없이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어와 영어의 형용사는 일반적인 서술문에 단독으로 출현 가능할 뿐 아니라, 이것이 자연스러운 무표지 표현에 해당한다. 한국어와 영어에서 형용사에 정도부사를 더한 표현은 진정한 정도 강화를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정도 강화 의미를 지니지 않는 표현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아래 (2)의 예를 보자.

- (2) a. 그는 매우 똑똑하다. (→ 他非常聰明。 / 他很聰明。)
 b. He is very smart. (→ 他非常聰明。 / 他很聰明。)

(2a-b)의 의미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현 역시 정도부사를 지녀 정도 강화 의미를 나타낸다. (1)과 (2)의 대응 현상을 통해 중국어의 정도부사 ‘很’이 정도

강화 의미를 나타낼 뿐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정도 강화 의미가 없는 속성 의미와도 결합하여 서술문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적인 정도 강화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출현하는 '非常'과는 다른 모습이다. 우리는 이처럼 다른 언어의 '정도부사+형용사' 구문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 중국어의 '很+형용사' 구문에 주목하고, 중국어에서 이와 같은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문제점

2.1. 대비 관련설

중국 문법학계에서는 일찍이 朱德熙(1956)가 관련 현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朱德熙(1956)는 성질형용사가 다른 부가 성분 없이 단독으로 술어로 쓰이면 비교 또는 대조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흔히 대조문의 형식을 이룬다고 하였다.

(3) 屋里黑, 外头亮。(대조문)

그는 문맥에서 비교나 대조의 의미가 명확할 때에만 형용사 술어가 독립하여 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4) 这本好。(다른 책에 비해서 이 책이 좋다는 비교 의미인 경우)

그러나 '很大', '挺好', '非常漂亮'처럼 정도부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구가 술어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장이 비교나 대조의 의미가 없어 독립하여 출현 가능하다고 하였다.

郭銳(2001)는 이러한 朱德熙(1956)의 관점을 바탕으로 '정도성'을 사용하

여 관련 문제를 설명하였다. 그는 술어형용사는 늘 정도성을 지니고, 그 정도성은 몇 가지 일정한 표현 방식¹⁾을 지닌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인 서술문(비의문문, 비부정문, 비'형용사+了')에서 만약 형용사가 정도부사나 정도보어, 비교구문 등과 같은 정도를 나타내는 성분을 지니지 않는다면, 형용사는 대비의 의미로 이해된다. 그는 '很'을 더하는 것은 이러한 비교 의미를 제거하기 위함이고, 이를 '很'의 약화 용법이라 칭하였다.

실제 예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관점도 朱德熙(1956), 郭銳(2001)의 논의와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2.2. 묘사성 술어 관련설

朱德熙(1956)는 또한 묘사성과 관련하여 해당 문제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는 단독 형용사 술어는 사물의 항구적 속성을 나타내고, 정도부사와 공기하는 형용사 술어 또는 상태사 술어²⁾는 잠재적 가변성을 지닌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건을 서술하는 일시적인 언어 환경에서는 후자의 경우만이 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沈家煊(1997)은 술어는 임시성을 지니고 한정어는 항구성을 지니는데, 상태형용사는 술어로 쓰일 때 무표지적이고 성질형용사는 한정어로 쓰일 때 무표지적이라고 하였다. 그는 성질형용사에 정도부사를 더한 구조는 이미 상태

1) 郭銳(2001), 중국어 술어형용사의 정도성 표현 방식

1. 정도를 표시하는 성분(정도부사, 정도보어, '比'자구조, '于'자구조 등)을 지닌다.
2. 의문문에서 형용사의 정도는 비확정적이고, 이 때 정도를 표시하는 성분을 지니지 않을 수 있다. (예: 苹果紅嗎?)
3. 부정문에서 형용사의 정도는 0이고, 이 때 역시 정도를 표시하는 성분을 지니지 않을 수 있다. (예: 苹果不紅。)
4. 이미 일어났음을 표시하는 성분을 지니고, 정도성은 정도의 변화로 나타난다. (예: 苹果紅了。)
5. 정도를 표시하는 성분을 지니지 않으면서 동시에 2,3,4의 경우에 속하지도 않는다면, 정도성은 대비 의미로 나타난다. (예: 苹果話, 橘子酸。)

2) 朱德熙(1956)의 形容詞的複雜形勢에 해당한다.

형용사로 변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정도부사+성질형용사] 조합이 상태형용사의 자격으로 술어로 쓰이는 것이라 본 것이다.

張國憲(2006)은 沈家煊(1997)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이미지(意象)와 화용의미, 언어형식간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이미지	화용의미	언어형식화
성질	단정(斷定)	한정어
상태	묘사(描繪)	부사어/술어
변화	진술(陳述)	술어/보어

<표1. 張國憲(2006:15), 이미지-화용의미-언어형식 관계>

<표1>에 따르면, 성질이미지는 단정(斷定)의 화용의미를 지니고 한정어로 형식화되는 반면, 상태이미지는 묘사의 화용의미를 지니고 부사어 또는 술어로 형식화된다. 성질형용사가 정도부사와 공기하면 상태이미지로 바뀌게 되는데, 이로써 묘사성을 지녀 술어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은 성질형용사가 술어로 쓰일 때 정도부사와 공기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나, 왜 다른 언어들과 달리 중국어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2.3. 술어 표지 관련설

黃師哲(2008)는 성질형용사는 성질 의미 유형이 아니라 명사와 같은 개체 의미 유형(type e)에 해당하고, 따라서 논항을 지닐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상태형용사는 성질 의미 유형(type <e,t>)으로 논항을 지닐 수 있다고 하였다. 개체 의미 유형은 논항을 지닐 수 없으므로 술어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성질형용사가 술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개체 의미 유형을 성질 의미 유형으로 전환시켜줄 기제가 필요하고, '很'을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유형전환연산자(type shifter)로 보았다. 예컨대, '高'는 개체 의미 유형이라 술어로

가능할 수 없지만, 유형전환연산자 ‘很’과 공기한 ‘很高’는 성질 의미 유형이 되어 술어의 자격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하게 개체 의미 유형인 명사 역시 유형전환연산자 ‘很’을 부가함으로 성질 의미 유형으로 변해 술어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았는데, ‘很淑女’가 그러한 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很’이 유형전환연산자라면 ‘很’과 결합하는 요소는 그 의미 유형에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지만, 모든 명사가 ‘很’과 공기한 후 성질 의미 유형으로 변해 술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명사는 전체 명사 범주의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또한 중국어 성질형용사를 명사와 같은 개체 의미 유형으로는 보는 그의 관점은 중국어 성질형용사가 성질 의미를 나타낸다는 보편적인 견해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黃師哲(2008)와 유사한 맥락의 관점으로 張伯江(2011)을 들 수 있다. 張伯江(2011)은 중국어 형용사가 유형학적으로 체언적 유형에 해당하고, 체언성을 띠는 형용사가 술어로 기능할 때에는 통사적 표지를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중국어 형용사가 술어로 쓰일 때 ‘很’을 지니는 것은, 동일한 체언성 유형인 영어 형용사가 술어로 작용할 때 Be동사와 함께 쓰이는 현상과 같은 이치라고 하였다. 즉 ‘很’을 Be동사와 같은 술어 통사 표지로 보았다. 필자는 張伯江(2011)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데, 유형학적 접근의 선행연구에 근거하면 중국어 형용사는 체언적이기보다 술어적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³⁾

2.4. 시제 관련설

해당 문제가 시제와 관련된 것으로 본 연구로는 顧陽(2007)과 Grano(2012)를 들 수 있다. 顧陽(2007)은 Enç(1987)의 관점⁴⁾을 바탕으로 문장은 시제를 확정한 구조라고 보았다. 언어들은 각기 다른 문법 수단을 통해 시제를

3) 張伯江(2011)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최신혜(2018)을 참고하기 바란다.

4) Enç(1987)는 명제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닳을 내려야만 진리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언어의 문장은 반드시 시공 개념을 나타내는 기능범주, 즉 시제를 지닌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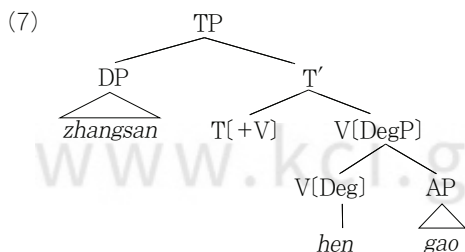
	긍정형	비교형	
English	tall	taller	
Irish	ard	arda	파생된 비교형
Spanish	alto	más alto	
French	grand	plus grand	우회적 비교형
Swahili	mrefu	mrefu	
Japanese	takai	takai	차이 없음

<표2. Grano(2012: 515), 긍정형과 비교형의 형태통사적 관계>

그는 여러 언어(English, Irish, Spanish, French 등)에서 형용사의 비교형은 긍정형에 대해 유표지적이고, 일부 언어(Swahili, Japanese 등)에서는 비교형이 긍정형과 같은 형태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긍정형이 유표적이고 비교형이 무표적인 언어는 없음을 발견하고, 결국 보편적으로 형용사의 비교형은 형용사의 긍정형으로부터 도출됨을 제시하였다. 그는 중국어 등급형용사는 <표2>의 스와힐리어나 일본어처럼 긍정형과 비교형에 차이가 없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고, 긍정형이 '很'과 공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T(+V) 제약'을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6) T(+V) 제약: 중국어에서 T(Tense시제)의 직접 보충어는 반드시 동사 또는 원칙적으로 동사와 결합할 수 있는 기능형태소여야 한다.

T(+V)제약에 따라, 중국어에서 T(시제)의 보충어는 형용사일 수 없는데, 정도부사가 AP와 결합하면, 이것이 A→V 범주 전환 기능을 하고, 이로써 투사가 T와 결합되도록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중국어 등급형용사를 스와힐리어나 일본어처럼 긍정형과 비교형이 같은 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중국어 등급형용사의 긍정형은 '很'이라는 형태적 표지를 분명히 지니는데, '很'을 지니는 긍정형과 단독으로 사용되는 비교형을 같은 유형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형용사 단독으로 사용되면 비교서술이 되고(8a), '很'을 지닌 형태가 오히려 긍정서술이 되는(8b) 중국어는 Grano(2012)가 제시한 보편적 경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8) a. 張三高。

(Zhangsan is taller (than someone known from context).)

b. 張三很高。

(Zhangsan is tall.)

(Sybesma 1999:27)

따라서 Grano(2012)의 서술은 생성문법적 틀에 부합하기 위한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여겨진다.

2.5. 초점 관련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초점과 관련하여 설명한 대표적 논의로 朴正九(2016)를 들 수 있다. 朴正九(2016)는 형용사 술어문의 '很'이 술어초점 표지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형용사 술어문은 대개 술어초점문, 즉 '화제-진술문(topic-comment)'에 해당하고, 술어초점문에서 술어는 초점으로 작용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정도부사를 덧붙이곤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만약 형용사 술어문이 '화제-진술' 구조가 아니라면, 문장 전체가 초점이 되는 '문장초점' 구조 또는 주어가 초점이 되는 '논항초점' 구조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 이 두 구조는 모두 유표지적이어서 운율상 강세가 문구에 올 뿐 아니라, 형용사 단독으로 술어를 충당한다.

朴正九(2016)는 형용사가 단독으로 술어를 충당하는 경우를 유표적으로 보고, ‘很’과 공기하는 경우를 무표적으로 보았는데, 필자는 반대로 형용사가 ‘很’을 지니는 것을 유표적으로 보고, 형용사 단독으로 출현하는 것을 무표적으로 보는 것이 형태적으로 적합하지 않나 생각된다. 또한 중국어에서 문미초점은 자연초점이므로, 형용사 술어문에서 술어가 초점이 되는 것이 자연초점에 해당하여 오히려 무표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자연초점인 형용사 술어문이 왜 ‘很’이라는 부가 성분을 지님으로 유표지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3장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다.

3.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형용사 술어문

우리는 어떠한 문법적 현상은 개별 언어가 가지는 특징인 동시에 여러 언어의 공통적인 범주가 또 다른 모습으로 실현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필자는 중국어 형용사 술어문을 한국어 표현과 대조 분석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어 형용사 술어문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3.1. 한국어 형용사 술어문의 특징

한국어는 중국어와 달리 격표지가 있고 그 중 주격표지는 ‘-이/-가’이다. 한국어는 또한 화제표지 ‘-은/-는’이 있다. 따라서 형용사 술어문은 다음의 두 가지 표현 형식을 가지게 된다. 아래의 예를 보자.

- (9) a. 안이 따뜻하다. (주어-술어)
 b. 안은 따뜻하다. (화제-서술)

'-이/-가'와 '-은/-는'은 각각 주격과 화제를 나타내는 것 외에, 또한 다른 기능을 지닌다. 우선, '-이/-가'는 결합하는 성분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기능이 있다. 즉 '-이/-가'는 문맥에 따라 초점 표지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선택의문문에서 어느 주어를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경우에는 주어가 초점이 되므로 주어 뒤에 '-이/-가'를 사용해야 하고, '-은/-는'은 사용할 수 없다. 대응되는 답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 (10) a. 안이 따뜻하니 밖이 따뜻하니?
 a' *안은 따뜻하니 밖은 따뜻하니?
 b. 안이 따뜻하다. (초점-서술)

다음으로, '-은/-는'의 기능을 살펴보자. 우선, '-은/-는'이 화제 표지일 경우, 화제는 기지정보(已知信息)에 해당하여 정보량이 적으므로, 문장의 초점은 자연히 화제 뒤의 서술에 위치하게 된다. 예컨대, 형용사 술어문에서는 형용사가 문장의 초점이 된다.

- (11) 안은 따뜻하다. (화제-초점)

'-은/-는'은 또한 결합하는 성분이 대조의 상황에 처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은/-는'이 붙은 주어 성분은 대조 항목으로 이해된다. '-은/-는'을 사용한 대조문은 [A는 X, B는 Y]와 같은 구조를 이룬다. A와 B는 대조 항목이고, X와 Y는 대조 내용이다. 문맥에 따라 [A는 X]만 출현하더라도 대조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A는 X]와 대조를 이루는 내용은 문맥에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대조 항목을 나타내는 '-은/-는'을 '대조 항목 표지(CON : contrast)'라 칭하고자 한다. (12)를 보자.

- (12) a. 팔은 길고 다리는 짧다. (대조항목-대조내용)
 b. 북방은 건조하고 남방은 습하다. (대조항목-대조내용)

(12a-b)는 각각 두 가지 대조 항목과 대조 내용으로 구성된 문장이다. (12)에서 주어는 초점이 아니므로, 주어는 초점표지 '-이/-가'를 쓸 필요가 없다. (12)가 나타내는 것은 대비 의미이고, 따라서 주어 뒤에는 대조 항목 표지인 '-은/-는'이 붙는다. (12a-b)두 문장의 주어는 '-이/-가'와 결합할 수 있지만, '-이/-가'와 결합하게 되면 문장은 대조 의미가 사라지고, 일반적인 주술술어문으로 이루어진 복문이 되거나, 주어초점문이 된다.

주어 뒤에 붙는 두 가지 표지 '-이/-가'와 '-은/-는'의 기능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가	-은/-는
기능1	주격표지(NOM)	화제표지(TOP)
기능2	주어초점표지(FOC)	대조항목표지(CON)

<표3. '-이/가'와 '-은/는'의 기능>

이상으로 우리는 한국어 형용사 술어문이 중국어와 달리 '-이/-가' 또는 '-은/-는'을 지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중국어 형용사 술어문의 두 가지 형태—형용사가 단독으로 술어를 이루는 경우와 형용사가 '很'과 공기하여 술어로 사용되는 경우—의 예문이 한국어에서 각각 어떠한 형태로 대응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중국어 형용사 술어문의 한국어 대응 상황

필자는 중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다섯 가지 기본형용사 '大', '小', '高', '快', '疼'이 단독으로 술어로 쓰이는 경우와 '很'과 공기하여 술어로 쓰이는 경우의 예문을 BCC 코퍼스⁶⁾에서 검색하여 해당 예문을 한국어 표현으로 옮긴 뒤 각

각의 대응 현상을 분석해보았다. 형용사가 술어로 쓰이는 경우만 분석하기 위해 형용사 뒤에 마침표(.)로 문장이 끝나는 형식으로 검색하였는데, 형용사가 단독으로 술어로 쓰이는 경우는 'NA. '형식으로(N大, N小, N高, N快, N疼.), '很'과 공기하여 술어로 쓰이는 경우는 'N很A. '(N很大, N很小, N很高, N很快, N很疼.) 형식으로 검색하였다. 검색하여 나온 예문 가운데 형용사 술어가 다시 다른 문장성분이 되는 경우, 예컨대 목적어절이나 보어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하였고, 'NA. '형식이 '比'나 '有' 등을 사용한 비교구문에 사용된 예도 제외하였다. 최대한 문장 내의 다른 요소들의 관여를 줄이기 위해 '因爲'나 '好像' 등의 성분 뒤에 형용사 술어가 출현하는 경우도 배제하였다. 이들 형용사가 단독으로 술어를 이루는 경우와 '很'과 공기하여 술어를 이루는 경우의 앞뒤 문맥을 참고하여 각각의 예문을 한국어 표현으로 옮겨보았다. '-이/-가'와 '-은/-는'이 모두 어울리는 경우도 몇몇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예문이 두 가지 형태 중 더욱 적합하고 자연스러운 한 가지 형태로 대응되었다. '大', '小', '高', '快', '疼'의 'NA. '와 'N很A. '형이 '-이/-가'와 '-은/-는'에 대응되는 상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형용사	문형	'-이/-가'에 대응되는 예문 수	'-은/-는'에 대응되는 예문 수
大	N大	34	6
	N很大	20	6
小	N小	12	5
	N很小	13	18
高	N高	15	1
	N很高	42	14
快	N快	5	0
	N很快	8	4
疼	N疼	14	0
	N很疼	7	0

<표4. 중국어 형용사 술어문의 '-이/가' 와 '-은/는' 대응 현황>

www.kci.go.kr

<표4>에서 형용사가 단독으로 술어로 사용되는 예문의 ‘-이/-가’와 ‘-은/-는’ 대응 수치는 ‘N大.’—34:6, ‘N小.’—12:5, ‘N高.’—15:1, ‘N快.’—5:0, ‘N疼.’—14:0으로, 대부분 ‘-이/-가’에 대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검색된 ‘NA.’ 예문은 대체로 주술술어문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한국어에서도 주격표지인 ‘-이/-가’에 대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 (13) a. 他學問大。
그는 학문이 넓다.
b. 我食量少。
나는 식사량이 작다.
c. 他自負，有才華，智商高。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재능이 있으며, 지능이 높다.
d. 小孩子耳朵快。
아이가 귀가 영민하다
e. 我嗓子疼。
나는 목이 아프다.

‘NA.’가 ‘-은/-는’에 대응되는 예는 총 92개 중 12개로 그 수가 적었고, 대부분(12개 가운데 11개) 대비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였다. 아래의 예를 보자.

- (14) a. 你們小，你們爹大。
너희는 어리고, 너희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시잖니.
b. 原來這家伙个子大，胆量小。
알고 보니 이 녀석 키는 크데, 담력은 작구나.
c. 秦媽媽，你慢点，這個台階高。
진 어머니, 조심하세요, 이 계단은 높아요. (대비 문맥)

형용사가 ‘很’과 공기하여 술어로 작용하는 ‘N很A.’의 ‘-이/-가’와 ‘-은/-는’ 대응 수치는 ‘N很大.’—20:6, ‘N很小.’—13:18, ‘N很高.’—42:14, ‘N很快.’—8:4, ‘N很疼.’—7:0으로, ‘N很小.’를 제외한 나머지 네 형용사의 대다수 예에서 ‘-이/-가’에 대응되고 있었다. ‘N很A.’가 ‘-이/-가’에 대응되는 아래

의 예를 보자.

- (15) a. 談話的聲音很大。
이야기하는 소리가간 매우 컸다.
b. 開始數目很小。
처음엔 금액이 매우 작았다.
c. 賭注很高。
판돈이 매우 높다.
d. 光陰很快。
세월이 매우 빠르다.
e. 我的右腳很疼。
제 오른발이 너무 아파요.

'N很A.'가 '-은/-는'에 대응되는 예는 총 132개 중 42개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 가운데 대비 의미로 사용된 예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 (16) a. 世界很大。
세계는 매우 크다.
b. 我的聲音很小。
내 목소리는 매우 작다.
c. 他的文化修養很高。
그의 문화소양은 매우 높다.
d. 我們前進的速度很快。
우리가 전진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

앞서 朴正九(2016)는 '很+형용사'는 화제-진술문에 사용되며 이 때 '很'은 해당 형용사가 초점이 됨을 표시하는 술어초점 표지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很+형용사'가 사용된 실제 예문은 화제-진술문이 되므로 한국어에서는 화제 표지인 '-은/-는'에 대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4>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N很A.'는 대체로 '-이/-가'에 대응되었고, 화제 표지인 '-은/-는'에 대응되는 예는 대략 1/3 정도로 '-이/-가'에 비해 현저히 적은

비율을 보였다. 'N很A.'가 화제표지 '-은/-는'에 대응되지 않는 예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근거해볼 때, 형용사 술어문의 '很'을 화제-진술문에 사용되는 술어초점 표지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2.5절에서 언급하였듯이, 필자는 형용사 술어문에서 술어가 초점이 되는 것은 문미초점, 즉 자연초점에 해당하므로 '很'과 같은 표지를 따로 지닐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도 강화의 의미가 없음에도 형용사와 공기하여 술어문을 이루는 '很'은 과연 어떠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3.3. 비(非)대비 표지 '很'

우리는 Cresswell(1976), von Stechow(1984), Kennedy(1999), Kennedy & McNally(2005), Grano(2012)가 제시한대로 등급형용사가 긍정서술과 비교서술 두 가지 형식을 통해 술어로 사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형용사 술어문을 긍정서술과 대비서술로 나누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긍정서술은 형용사가 정도 강화 의미를 지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지고, 대비서술은 비교나 대조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⁷⁾ 한국어의 예를 통해 각각의 경우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7) 한국어 형용사 술어문의 긍정서술, 대비서술

형용사 술어문	[긍정서술	[-(정도강화): 눈이 크다 (주격조사)
		+ (정도강화): 눈이 매우 크다 (정도부사)	
	[대비서술	비교 의미: 눈이 크다 (주어초점표지)
		대조 의미: 눈은 크다 (대조항목표지)	

7) '대비', '비교', '대조' 이 세 가지 용어는 모두 두 가지 사물을 맞대어 건주어 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 표현에 있어서는 3.1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교'와 '대조'가 각각 독립된 범주를 이룬다. 본고에서는 A와 B를 X라는 속성을 두고 비교한 결과 A 혹은 B가 그 속성에 해당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비교' 의미로 보고, [A는 X, B는 Y]의 형식을 통해 A와 B가 각각 X와 Y라는 다른 속성을 지님을 나타내는 경우를 '대조' 의미로 보고자 한다. 또한 '대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비교' 의미와 '대조' 의미를 아우르는 범주로 칭하고자 한다.

한국어에서는 정도 강화 의미를 지닌 긍정서술은 정도부사를 통해 나타내고, 정도 강화 의미가 없는 긍정서술과 대비서술은 각각 주격조사, 주어초점 표지, 대조항목 표지를 통해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어의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18) 중국어 형용사 술어문의 긍정서술, 대비서술

형용사 술어문	[긍정서술	- [정도강화]: 眼睛很大。(N很A)
			+ [정도강화]: 眼睛很/非常大。(N很/非常A)
	[대비서술	비교 의미: 眼睛大 (NA)
			대조 의미: 眼睛大 (NA)

중국어에서 대비서술은 형용사가 단독으로 술어로 사용되는 'NA' 형태를 띤다. 긍정서술 가운데 정도 강화 의미를 지니는 경우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정도부사를 통해 나타낸다. 정도 강화 의미가 없는 긍정서술의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정도부사를 지니지 않은 'NA' 형태여야 하지만, 흥미롭게도 '很'을 지닌 'N很A' 형태이다. 정도 강화 의미는 '很' 외에 '非常', '特别' 등 다른 정도부사와의 공기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정도 강화 의미가 없는 긍정서술은 'N很A' 형태로만 사용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로써 정도 강화 의미가 없는 긍정서술 'N很A'의 '很'은 단순한 정도 강화 의미가 아닌 다른 기능을 지님을 알 수 있다.

만일 중국어에서 정도 강화 의미가 없는 긍정서술이 한국어나 영어처럼 'NA' 형태를 띤다면 형식상 대비서술의 'NA'와 동일하게 되어 대비 의미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정도 강화 의미가 없는 긍정서술이 형용사 앞에 '很'을 지님으로 'N很A' 형태가 되어 형식상 대비서술인 'NA'와 구별되어지는 것이다. <표4>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실제로 'N很A.'의 예문 가운데에는 대비 의미로 사용된 예가 없었는데, 이로써 'NA'는 대비서술에 'N很A.'는 비(非)대비서술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 형용사 술어문에서는 주어초점 표지 '-이/-가' 또는 대조항목 표지 '-은/-는'을 사용함으로써 대비 의미를 지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대비문과 비(非)대비문을 구별하는 표지를 이미 지니기 때문에, 다시 형용사에 다른 표지를 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중국어는 일반적으로 주어 뒤에 표지를 더하지 않고 형용사에 표지를 둠으로 대비문과 비(非)대비문을 구별한다. 형용사가 단독으로 출현하면 대비 의미를 지니고, 형용사에 '很'을 더하면 대비 의미가 제거된다. 고립어로서 형태표지가 빈약한 중국어는 형용사 앞에 정도부사를 더하는 통사적 방식을 통해 대비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요컨대, 형용사 술어문이 대비 의미를 지니는지의 여부가 한국어에서는 주어 뒤의 표지를 통해 구현되고, 중국어에서는 형용사에 구현된다.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정도부사와 자주 공기하는데, 특히 사용 빈도가 높은 '很'이 정도 강화 의미가 없는 긍정서술이 비대비문임을 나타내는 문법적 기능 요소로 채택된 것이다. 이로써 비록 정도 강화 의미가 없는 긍정서술과 정도 강화 의미가 있는 긍정서술이 모두 '很'을 지닌 'N很A'형을 띠게 되지만, 정도 강화 의미를 나타내는 긍정서술인 경우에는 '很'외에도 '非常', '相当', '比較' 등 다른 정도부사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형태로 인한 문제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4. 속성 개념의 실현 문제

중국어 형용사 술어문에서 형용사가 '很'과 공기하는 것은 형용사의 내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넓게는 개념이 실제 언어로 실현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즉, 해당 현상을 인간이 개념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 가운데 작용하는 기제들에 속한 세부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개념이 실제 언어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명사는 수(단수/복수), 지칭(지시/비지시, 한정/비한정), 성(양성/음성), 격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동사는 시제, 태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형용사는 정도부사와의 결합, 비교급, 비교구문 등과 같은 정도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만약 '苹果'와 '甜', 이 두 개념으로 일반서술문을 만든다면 아래의 몇 가지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19) a. 苹果甜。(대비 문맥)
 b. 苹果很甜。
 c. 苹果是甜的。

'苹果'와 '甜'이라는 두 개념을 사용하여 의미를 나타낼 때, 화자는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개입된 범주를 고려하게 되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적절한 문장을 만들어 내게 된다. 만약 대비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19a)를 선택할 것이고, 만약 대비 의미를 제거하거나 정도의 강화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19b)를 택할 것이다. 만약 항상적(恒常性) 사실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19c)를 택할 것이다. 비항상적 사실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명제는 (19b)로 표현될 것이다. (19b)는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서술이므로 '很'을 사용하여 '甜'이라는 속성이 이 사건 가운데 지니는 구체적 정도를 나타낸다.

중국어에서 항상적 사실을 나타내고, 그 사실이 속성 의미 내용일 때, 종종 '是...的'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 (20) a. 地球是圓的。
 b. 糖是甜的。
 c. 雪是白的。

우리는 한국어와 영어에서 이러한 항상성 사실의 표현 수단이 다른 범주에 구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영어의 경우를 보자.

- (21) a. The earth is round. (地球是圓的。)
 b. Sugar is sweet. (糖是甜的。)
 c. The sugar was very sweet. (糖非常甜。)

영어에서 항상적 사실은 우선 '시제' 범주에 구현되어 (21a-b)와 같이 일반 현재시제로 나타난다. 그러나 명제가 어떠한 사건에 관련될 때, 문장은 (21c)와 같이 비현재시를 사용할 수 있다. 어제 먹은 설탕이 매우 달았음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21c)와 같은 문장을 사용할 것이다. 반대로 (21a)는 변치 않는 진리이므로 일반현재시제만을 사용한다. 영어에서 항상적 사실은 또한 (21b-c)에서처럼 지칭 범주에도 구현된다. 설탕의 천연적인 속성 'sweet'을 나타낼 때는 (21b)를 사용하고, 이때 'sugar'는 물질명사이고 총칭이므로 관사를 더하지 않는다. 그러나 'Sugar is sweet'이라는 명제가 어떠한 사건에 관련되면 (21c)에서처럼 정관사 'the'를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속성 의미는 어떠한 사건 속에서 구체적인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 (21c)에서 정도부사 'very'를 사용한 것이 그러하다. 영어 형용사 술어문의 실제 언어 가운데에서의 실현이 시제(시간성), 관사(지칭성), 정도부사(정도성) 등의 범주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경우를 살펴보자.

- (22) a. 지구는 둥글다. (地球是圓的。)
 b. 설탕은 달다. (糖是甜的。)
 c. 눈은 하얗다. (雪是白的。)
 d. 설탕이/은 매우 달았다. (糖非常甜。)

한국어에서는 항상적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 (22a-c)에서처럼 일반적으로 화제 표지 '-은/-는'을 사용한다. 명제가 어떠한 사건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22d)와 같이 주격 표지 또는 화제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조건에 따라 '-이/-가' 혹은 '-은/-는'을 선택하여 취한다. 또한 해당 명제가 과거의 일에 관련된 경우 (22d)에서처럼 과거시제 표지 '-았/었'을 사용해야 한다. (22d)는 또한 정도부사 '매우'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한국어 형용사 술어문의 실현은 주어/화제 표지, 시제, 정도부사(정도성)와 같은 범주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어떤 개념이 실제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여러 범주들의 작용과 관련

되어 있고, 관련되는 범주들과 그 작용 양상은 언어별로 차이를 지닐 수 있다. 우리는 중국어 형용사 술어문에서 형용사가 '很'과 공기하는 것 역시 해당 형용사가 나타내는 속성 개념이 실제 언어 가운데 실현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며, 구체적으로는 속성의 비항상성, 정도성 구현, 비대비 표지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실제적인 정도 강화 의미가 없어 정도성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很'은 비대비 표지로서 기능한다.

5. 결론

본고는 중국어 형용사가 술어로 기능할 때, 실제적인 정도 강화 의미가 없음에도 '很'과 공기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다른 언어와 달리 중국어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원인을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았다.

우리는 중국어 형용사가 단독으로 술어로 쓰이는 경우와 '很'과 공기하여 쓰이는 경우의 예문을 조사하여 한국어와의 대응 상황을 분석해보았고, 그 결과 '很'과 공기하여 쓰이는 'N很A'는 비(非)대비서술에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형용사 술어문은 크게 긍정서술과 대비서술로 구분된다. 중국어에서는 정도 강화 의미가 없는 긍정서술이 'NA'형태일 경우, 대비서술인 'NA'와 형태적 동일성을 띠게 되어 대비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정도부사 가운데 특히 사용 빈도가 높은 '很'을 더한 'N很A'의 형태로 해당 서술이 비대비서술, 곧 긍정서술임을 표시하게 되었다고 본다. 즉, 정도 강화 의미가 없는 긍정서술에 출현하는 '很'은 '비대비 표지'로 기능한다. 한국어에서는 주어 뒤에 '-이/-가' 또는 '-은/-는'을 붙여 대비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고립어로서 형태표지가 빈약한 중국어는 형용사 앞에 '很'을 더하는 통사적 방식을 통해 대비문과 비대비문을 구별한다. 이로써 형용사 술어문이 대비 의미를 지니는지의 여부가 한국어에서는 주어 뒤의 표지를 통해 구현되고, 중국어에서는 형용사에 구현됨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형용사 술어문은 중국어 학습 초기에 습득하게 되는 기본 구문이며, ‘속성’이 ‘대상’, ‘동작’과 아울러 3대 주요 의미군에 해당하는 만큼 실제 회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구문이다. 한국어에서는 정도 강화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정도 부사를 사용하므로, ‘很+형용사’ 구문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가 습관적으로 오류를 범하게 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대조언어학적 접근에 기반을 둔 본 연구가 해당 문제의 교학적 측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

- 임경희(2012), <중국어 程度副詞 ‘很’의 형성과 발전>, 《중국어문논역총간》 30집.
- 진화진(2017), <형용사의 서술어 기능과 ‘很’ 수식>, 《중국어교육과연구》 26집.
- 최신혜(2018), <현대중국어 속성어 범주의 품사적 경계 설정>, 《중국어언어연구》 77집.
- Grano, T.(2012), Mandarin *hen* and Universal Markedness in gradable adjectives,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Vol.30, No.2, pp.513-565.
- 顧 陽(2007), <時態、時制理論與漢語時間參照>, 《語言科學》 第4期.
- 郭 銳(2001), <漢語形容詞的劃界>, 《中國語言學報》 第10期.
- 黃師哲(2008), <語義類型相配論與多种語言形名結構之研究>, 《漢語學報》 第2期.
- 劉 冰(2010), 《現代漢語程度副詞‘很’的多角度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劉丹青(2018), <制約話題結構的諸參項—謂語類型、判斷類型及指稱和角色>, 《當代語言學》 第1期.
- 龐加光(2015), <概念語義學視角下的形容詞謂語自足性>, 《現代外語》 第3期.
- 朴正九(2016), <從類型學視角看漢語形容詞謂語句的信息結構>, 《中國語文》 第4期.
- 沈家煊(1997), <形容詞句法功能的標記模式>, 《中國語文》 第4期.
- 吳春波(2013), <淺析謂語結構‘很+形容詞’>, 《湖北文理學院學報》 第10期.
- 伍雅清(2013), <形容詞作謂語的不完句效應研究>, 《現代外語》 第1期.
- 楊 凡(2008), <試析作謂語的‘很+adj’組合>, 《和田師範專科學校學報》, 第3期.
- 張伯江(2011), <現代漢語形容詞做謂語問題>, 《世界漢語教學》 第1期.

- 張國憲(2006), 《現代漢語形容詞功能与認知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朱德熙(1956), <現代漢語形容詞研究>, 《語言研究》 第1期.
_____(1982), 《語法講義》, 北京: 商務印書館.

< Abstract >

A Study on the Function of 'Hen' in Adjective Predicate Sentences
in Modern Chinese:
Focusing on the Contrastive Linguistic Approach

Choi, Shinhye

This paper focuses on the phenomenon that appears with 'Hen' when Chinese adjectives function as predicates and examines the causes of these features in Chinese, as opposed to other languages, from a contrastive linguistic point of view.

Adjective predicate sentence is divided into positive predication and comparative/contrastive predication. In Chinese, if the positive predication with no degree of intensification is 'NA', it can be understood as a comparative /contrastive meaning because it has morphological identity with comparative /contrastive predication 'NA'.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Hen', which is especially frequently used among degree adverbs, is added to indicate that the description is a non-comparative/contrastive predication in the form of 'N Hen A'. That is, 'Hen', which appears in positive predication with no sense of degree enhancement, functions as a 'non-contrast mark'. Thus, it was found that whether or not adjective predicate sentence has a contrasting meaning is implemented by mark after subject in Korean, and it is implemented in adjective in Chinese.

We also note that the appearance of 'Hen' in the adjective predicate sentence

is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the attribute concept represented by the adjective in the actual language, specifically related to the non-constancy of attributes, implementation of degree, non-contrast mark.

Key words: *Hen*, adjective predicate, degree, comparative predication, contrastive predicatio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10. 26	2018. 11. 13	2018. 11. 14	2018. 12. 3	2018. 12. 31